



1. Pearl Flock 14×14×5cm, 채색된 은(92.5%), 2003
 2. Pear Sphere Ø26cm×11cm, 은(92.5%), 1997
 3. 무제 37×37×5.5cm, 은(92.5%), 2004
 4. CirkIrond 7 Ø30.05×8cm, 은(92.5%), 1997
 5. Pearl Bol Black & White Ø16×15cm, 은(92.5%), 2003
 6. Square Flower Ø25cm×22cm, 은(92.5%), 2004



2



3



4



5



6

알갱이와 기하학 구조 다비드 후이케 David Huyke

글 | 김지은 기자

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유럽 부문 초대작가 중 하나로 선정된 벨기에의 금속공예가 다비드 후이케(David Huyke)는 은으로 된 작은 알갱이를 기본 단위로 하는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물을 만든다.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은세공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서북부의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비드 후이케는 도자기와 식기를 식탁에 배치하는 일을 즐겨했던 아버지와 골동품 장신구 수집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미술과 아름다운 식탁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18세의 나이에 안트베르프의 미술학교에 진학하여 장신구 디자인과 금속세공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4년 간의 학업을 마칠 무렵 지그프리트 드 북(Siegfried De Buck)와 헨드릭 비유(Henrik Bijl) 등 당시 벨기에에서 은세공으로 명성을 떨치던 장인들로부터 기초적인 테크닉을 전수 받았다. 1989년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은세공 기법의 상당 부분을 독학으로 터득했고, 개인 공방을 열어 장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기물들

다비드 후이케는 금속공예가로서 하루일과 중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다고 말한다. “대상을 만들 때 생기는 망치질 자국, 캐스팅 작업에서 빛어지는 실수, 납땀할 때 드러나는 이음새 등 모두가 작업실에서 벌어지는 일의 흔적이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금속물질을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의 행위와 그 ‘과정’이 바로 창조의 원천이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작업여정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이 예술가는 소재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예견한다.

“은은 내가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 화가의 캔버스와 물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방면으로 색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표면을 불투명하게 연출하거나 거울처럼 반짝하게 광택을 내는 등 질감 효과도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다. 망치질, 캐스팅 등의 고전적 기법은 물론 매번 작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테크닉 속에서 그 결과물이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무궁무진하다.”

한편 반구에 가까운 주발, 원기둥 모양을 띤 꽃병 등은 「진주 구(Pearl Sphere)」, 「진주 사각형(Pearl Square)」과 같은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후이케의 그릇은 기하학의 용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물들은 ‘그 자체의 원리를 지닌 자율적인 오브제’임을 그가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비드 후이케의 은세공품은 형태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면에도 ‘추상적’이다.

전통에서 출발한 알갱이 세공법

기하학적인 특성은 작품의 구조를 형성하는 단위인 작은 알갱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가 사용하는 알갱이 세공 기술은 금속 표면에 작은 구슬 무리를 엮는 기술로서 대개의 경우 본 형태에 장식을 부착할 때에 사용된다. 접합된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원전 3세기경 근동지역의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에트루리아, 이탈리아 등으로 퍼졌고, 후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후이케는 ‘표면이나 바닥 없이 알갱이가 장식에 그치지 않고 기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다. 그 결과 그의 작품에서 알갱이는 기물을 구

축하는 데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장식적으로 전환되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알갱이 세공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확한 온도와 가열 시간을 들여 각각의 구슬이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융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은은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다. 은을 다루는 나의 작품에서 테크닉은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기반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작품에 전통 기법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그 전통에 구속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어떤 작업이든 나에게 그것은 출발점이 될 뿐이다” 그에게 전통은 새로운 작업 방향으로 우회하거나, 혹은 비약하기 위한 발판인 셈이다. ■



다비드 후이케 | 1967년에 벨기에의 신티-니클라스(Sint-Niklaas)에서 태어났다. 1985년에서 1989년까지 안트베르프(Antwerp)의 카렐 드 그로트-호게 미술학교에서 장신구 디자인 및 은세공을 수학했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12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뮌헨의 국제수공예박람회, 영국의 소더비의 현대장식미술전 등에 참가했으며 덴마크의 탁투스(Gallery Tactus)에 의해 선정돼 2004년 소파 뉴욕(SOFA New York)의 ‘유럽의 은세공사 대가들’전에 출품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